**항공시황 ESL**

**시장현황**

**OECD, 올해 러시아 경제 성장 전망 -1.7%로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간) 올해 러시아 경제가 -1.7%, 내년에는 0.5%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올해 0.4%, 내년 1.7% 성장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저유가로 인한 러시아 경기 침제 지속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날 OECD가 발표한 러시아 경제전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에너지 부문의 재정수입 감소를 비롯, 수입 및 투자 감소, 루블화 약세, 물가 상승률, 실질소득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것이다.

달러·루블 환율은 64~66루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8루블 수준이었던 2014년에 비해 여전히 두 배 가깝게 평가절하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돌발 변수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대체로 현재 수준에서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전년보다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항공사소식**

**국제유가**

**국제유가,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우려에 급등…WTI '11개월 최고치'**

국제 유가가 나이지리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7달러(2.2%) 급등한 46.6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7월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WTI는 한 때 49.9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랜트유 역시 0.9달러(1.81%) 상승한 50.54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의 공급 차질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다. 무장단체의 공격 영향으로 나이지리아의 경질유인 보니 라이트 산유량은 하루 평균 17만배럴 감소했고 나이지리아 전체 산유량 역시 50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장단체 '니제르델타 어벤저스'(Niger Delta Avengers·NDA)는 최근 4개월간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델타의 송유관을 폭파하고 수중 시설을 파괴하는 등 원유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왔다. 나이지리아 해군은 지난 3일 새벽에도 NDA 조직원들이 다국적 에너지 기업 로얄 더치 셸과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니(Eni SpA)가 각각 소유한 송유관 2개를 폭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옐런 의장의 발언이 예전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관련**

**러시아 기업 손해보고 회사채 '바이백' 왜?**

러시아 기업들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를 되사들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회사채를 되사는 것은 명백하게 손해 보는 ‘게임’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회사채 바이백에 나선 것은 초저금리에 신규 회사채를 발행, 손실액을 상쇄하면서 더 나은 조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여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값싼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닫힐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 기업들의 채권 갈아타기를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3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만 러시아 철강업체 두 곳과 해운업체가 2017~2019년 만기가 도래하는 33억4000만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되사들이기로 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러시아 회사채 규모는 65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볼리페트스크 스틸과 소브콤플로트 OJSC 등 이미 회사채 바이백 계획을 발표한 기업 이외에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러시안 레일웨이와 루크오일, 유로켐 등을 유력한 후보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페도르 비지코프 GHP 그룹 머니매니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표면적으로 볼 때 기업들의 회사채 재매입이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실상 신규 채권 발행 조건이 더 유리한 데다 저금리에 자금 조달 비용을 고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도 러시아 기업들의 회사채 갈아타기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러시아 자산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데다 투자자들의 고수익률 추구가 ‘사자’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기업들이 발행한 유로본드의 수익률 평균치는 지난 2일 기준 6.24%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달러화 표시 국채 발행에 성공을 거둔 데서 보듯 투자자들 사이에 러시아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고 있다.

조달 비용 여건과 투자 수요까지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자 러시아 기업들은 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앙드레 솔로예브 VTB 캐피탈 글로벌 채권 헤드는 “시장 상황이 러시아 기업의 채권 차환 발행에 매우 유리하다”며 “이 같은 여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S사 소식>
삼성페이 유럽 상륙

|  |  |
| --- | --- |
| 출시 국가 | 한국, 미국, 중국, 스페인 |
| 출시 준비국 |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
| 가입자수 | 출시 6개월째인 올해 3월 500만명 돌파, 2020년 1,700만명 달성 목표 |
| 제휴 중인 주요 금융사 | 은행 200개 이상비자, 마스터, 아멕스, 유니온페이 등 주요 카드사 |

스마트폰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유럽에 진출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올해 3월 중국에서의 서비스 개시에 이은 세번째 해외 전략시장 진출이다. 삼성전자는 2일(현지 시간) 스페인에서 까이샤뱅크, 이매진뱅크와 손잡고 유럽 최초로 삼성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페인 거주자는 두 은행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스마트폰으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은행계좌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삼성페이는 또 다른 스페인 은행인 아방카와 방코 사바델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페이는 앞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다른 주요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넓히게 된다 삼성페이는 이르면 이달중 싱가포르에서도 공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말레이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주요국에도 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중 캐나다에도 진출해 북미시장 전역을 공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이르면 3·4분기중** 삼성전자 서비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삼성페이의 영토를 계속 넓혀 2020년까지 1,700만명까지 삼성페이 이용자층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갤럭시S7+푸틴 초상=3,200만원?**

러시아판 봉이 김선달일까. 한 러시아업체가 삼성전자의 히트상품인 ‘갤럭시S7’스마트폰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얼굴을 새겨 붙인 뒤 최고 3,200만원대에 파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제의 회사는 ‘캐비어(Caviar)’라는 브랜드로 영업중인 현지의 스마트기기 수제 개조업체다. 이 업체는 그동안 주로 아이폰, 애플워치를 비롯한 애플의 스마트기기를 금장 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개조해 고가에 판매해 오다가 삼성전자 제품도 개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푸틴 초상화가 들어간 갤럭시S7제품중 티타늄 등으로 장식해 비교적 저렴한 것도 가격이 무려 15만9,000루블(약 270만원)에 이른다. 푸틴 얼굴 주위에 최고가 제품은 루비와 순금 등을 입힌 ‘슈프리모 푸틴 루비노’상품으로 무려 179만 루블(3,231만원)에 3개 제품 한정으로 출시됐다. 업체측은 이 제품에 대해 “캐비어 사상 최고가 모델 중 하나”라며 ”사회적 성공과 권력, 위엄을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전자업계는 캐비어 제품이 푸틴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경제 호황으로 등장한 신흥 부유층을 겨냥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해당 제품이 권력층에 로비용 선물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치 중국에서 황금월병, 금장시계 등이 로비용 상품으로 히트를 쳤던 것과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러시아에선 아직도 휴대폰 사용자중 스마트폰 이용자 비중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향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다만 푸틴 2기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신냉전의 여파와 국제유가 약세로 현지에 경제위기가 찾아와 러시아 내 스마트폰 시장도 한동안 얼어 붙어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현지 스마트폰 점유율 1위(지난해 4·4분기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저가폰 시장에서 레노버, ZTE 등 중국업체들이 무섭게 급부상하면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4위로 밀려나 지난해 4·4분기 러시아 점유율이 9.0%에 그쳤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테러 적색경보…40여명 사상 추정**
이슬람의 금식월 '라마단'을 하루 앞둔 5일(현지시각)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무장 괴한들의 테러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 당했다고 중동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소총으로 무장한 20여명의 괴한은 카자흐스탄 북서부 도시 악토베의 총기 판매점과 군부대를 습격했다. 괴한들은 도심에서 시내버스를 탈취해 운전사와 승객을 내리게 한 후 버스를 탄 채 군부대로 난입해 영내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6일 “전날 발생한 괴한들의 총기 판매점과 군부대 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 6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면서 “범인 11명도 사살되고 일부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테러범 9명을 체포했으며 도주한 잔당들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현지 보안당국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對)테러작전과 관련 최고 수위의 적색 테러경보를 발령했다고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TV 방송을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시내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다. 현지 언론은 “도심에 인적이 끊겼고 상공엔 헬기가 날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 전역의 인터넷이 끊겼 으며, 핸드폰 통화 연결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카자흐스탄 하원 외교·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울렌 아쉼바예프는 이날 테러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도 “총기 판매점과 군부대를 공격한 자들이 무기 탈취를 노린 극단주의 종교 세력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테러범들의 정체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미국, 우크라이나 경제 안정 위해 1조원 차관 지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을 위해 1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차관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국채 발행을 미국이 보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의 10억 달러(약 1조1천억 원) 규모 5년 만기 국채 발행을 보증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우크라이나 재무장관 알렉산드르 다닐륙과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제프리 파이엇이 협정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빈곤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국채 보증 형식으로 차관을 지원하는 것은 2014년 2월 정권 교체 혁명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실각한 이후 세 번째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과 체결한 보증 협정을 통해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 국채를 발행해 20억 달러를 조달한 뒤 개혁 추진 자금으로 활용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번 세 번째 보증 협정에 대해 "민주적이고 번영된 미래를 위해 개혁을 추구하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계속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차관 지원은 지난해 3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4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의 일환이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IMF는 175억 달러를 IMF가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지원하는 4년짜리 구제금융에 합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IMF로부터 각각 50억 달러와 17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내달 중 IMF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3차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정권 교체 이후 혼란과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지난해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9.9% 위축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1%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 모스크바 항공스케줄(ICN->SVO 구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IRLINE** | **DEST**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SUN** | **SUN (2)** |
|
| **SU** | **SVO1** | **SU251** | **SU251** | **SU251** | **SU251** | **SU251** | **SU251** | **SU251** |  |
| 1310/1855 | 1310/1855 | 1310/1855 | 1310/1855 | 1310/1855 | 1310/1855 | 1310/1855 |  |
| **KE** | **SVO2** |  | **KE529** | **KE529** | **KE529** | **KE529** | **KE529** | **KE529** |  |
|  | 0730/1050 | 0730/1050 | 0730/1050 | 0730/1050 | 0730/1050 | 0730/1050 |  |
| **RU** | **SVO2** |  |  |  | **RU392** | **RU492** |  | **RU692** | **RU792** |
|  |  |  | 0150/0510 | 0150/0510 |  | 0150/0510 | 2330/0250(+1) |

\*\*\* 선적 관련,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